

○金泳鎮委員 同年 6月중에도 陸軍會館에서 80年 당시에 現場에 倂견되었던 空輸部隊 指揮官들이 모임을 갖고 줄곧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 왔는데 한번도 거기에 참여한 일이 없으신가요?

○證人 金一玉 특별히 지금 현재 서울에 와 가지고 어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이 모임에서 정호용씨는 말하기를 光州市民은 國軍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 그리고 國軍에게 銃을 든것은 반역행위이고 폭도행위이다 光州에서 死亡者가 있다 하지만 그건 誤發이고 자기들의 誤發에 의해서 그리고 한풀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 주로 많다 그들이 폭도가 아니라면 國軍이 물리게 된다 이런 말을 80年5月 당시에 大隊長級 이상의 指揮官들이 모인 陸軍會館에서 얘기를 했는데 證人은 그 자리에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까?

○證人 金一玉 글썄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金委員님께서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런 모임에는 참석을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예.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全員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證據調查가 있을 것입니다.

○證人 金一玉 그런데 委員님께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저한테 質問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答辯을 어떤 것을 지금 현재 들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金泳鎮委員 證人이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大隊長級이상 指揮官들이 모여서 특히 88年11月23日의 모임에는 聽聞會를 대비한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명히 調查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國防 軍人들은 특히 그중에서도 野戰軍人들은 최근에 聽聞會를 통해서 발표된 戒嚴軍. 즉 空輸部隊의 잔인한 진압행위를 확인을 하고 空輸部隊가 실제로 그렇게 光州에 가서 잔압했느냐 우리는 사실 野戰軍에 참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많은 순수한 國防 軍人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잔인한 진압행위는 문제의 곤봉과 그리고 帶劍 그리고 M16을 통해서 銃劍術식으로 소위 示威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與黨委員의 訊問가운데 證人께서 答辯하기를 光州事態의 全期間중 帶劍을 사용한다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중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한번도 光州事態全期間동안에 空輸部隊가 帶劍을 사용한 일이없다...

○證人 金一玉 예. 맞습니다.

○金泳鎮委員 이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그런데 委員님 한가지 用語를 訂正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곤봉이 아니고 鎗壓棒입니다.

○金泳鎮委員 鎗壓棒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證人 金一玉 곤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동할 때 쓰는 도구를 곤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金泳鎮委員 또 다른 말이 있지요. 뭐라고 그러니까? 空輸部隊가 光州에 와서 사용했던 그 棒을 뭐라고 그러니까? 忠情棒이라고는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忠情棒이라고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鎗壓棒이라고 합니다.

○金泳鎮委員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證人 金一玉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約 45에서 50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당시에 空輸部隊가 사용했던 鎗壓棒이 맞지요?

○證人 金一玉 글썄요. 저희 大隊가 그 당시에 차이는 있습니다. 各特戰司別로 보급이 된 것이 아니고 大隊 자체에서 製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特戰司別로 왜 보급이 안됐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證人 金一玉 저희들이 받을 때는 보급이 안됐습니다.

○金泳鎮委員 여보세요. 陸軍 작상전 第212號, 이 指示文書를 통해서 空輸特戰團 그리고 2軍 3軍에 特殊鎮壓棒 1萬個를 일시에 공급합니다.

○證人 金一玉 언제 보급이 되었습니까?

○金泳鎮委員 陸軍 작상전 第212號 80年5月19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各部隊別로 다르다고 합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들은 그 앞에 部隊자체에서 製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들어보세요. 證人은 이것을 45내지 50cm라고 그렇게 過小縮小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本委員이 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鎮壓棒입니다. 이 鎮壓棒은 바로 警察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鎮壓棒이고 이 내용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秩序維持를 위한 威脅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空輸部隊가 바로 비교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本委員이 들고 취급하기도 무거운 정도의 강력한 鎮壓棒을 통해서 光州市民에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려치니까 뼈가 부러지고 골통이 부러지는 이런 기가 막힌 잔혹한 鎮壓을 분명히 空輸部隊가 光州에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鎮壓棒을 45cm 무슨 警察이 사용하고 있는 鎮壓棒인양 얘기하고 있는데 왜 證人은 거짓말을 합니까?

○證人 金一玉 글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委員님께서 그것이 50cm가 된다 40cm가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約 45cm 50cm정도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部隊別로 조금 길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것이 일정하게 軍에서 보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 棒은 空輸部隊가 사용하는 鎮壓棒이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證人 金一玉 방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年5月 몇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이미 이 鎮壓棒을 自隊에서 製作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鎮壓棒은 있었고 바로 陸軍 작상전 第215에 의해서 나간 鎮壓棒이 바로 그것이고 1萬個가 空

輸部隊에 다 나갔습니다.

○證人 金一玉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金泳鎮委員 7空輸35大隊만 무슨 별도의 大隊입니까.

○證人 金一玉 7空輸는 분명 이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金泳鎮委員 銃劍을 한번도 사용안했다고 그랬지요? 이것 空輸部隊가 사용하고 있는 帶劍이 맞습니까?

○證人 金一玉 맞습니다. 軍은 帶劍이 동일합니다.

○金泳鎮委員 이 帶劍과 忠情棒을 가지고 光州市民에 대해서 자인한 鎮壓殺傷行爲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7空輸部隊가... 證人은 지금 웃고 계시는 것입니까?

○證人 金一玉 委員님 제가 왜 웃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 손으로 들기도 힘든 이 鎮壓棒을 들고 帶劍을 들었다는 것은 論理上으로도 그 게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앎고요...

○金泳鎮委員 論理上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실제 裝備를 提供하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좋습니다. 7空輸에서는 분명히 총검진압을 안했다고 했지요?

○證人 金一玉 예.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합니까?

○證人 金一玉 예.

○金泳鎮委員 陸軍本部 戰敎司 作戰狀況日誌 1980年5月18日 20時15分 7空輸 총검진압... 이것 자료 갖다 주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니라고 해서 아닌 줄 아십니까? 지금 證人은 현저하게 僞證을 하고 있어요! 7空輸 총검진압...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文書는 陸軍本部 文書가 아니고 어디 다른 무슨 怪文書입니까? 證人 答辯하세요!

○證人 金一玉 저희들은 분명히 이 大劍이나 銃劍으로 鎮壓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作戰이 끝나고 나서 地域隊長이나 中隊長으로부터 會議를 했고 거기에서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大韓民國의 신성한 國防義務를 수행하는 이 陸軍本部가... 바로 陸軍本部的 이름으로 戰敎司 狀況日誌를 구체적으로 시간 별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일개 7空輸의 35 당시 大隊長이었던 證人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직하게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있으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지금 證人이 證言하고 있는 내용은 이 軍 關係된 文書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하게 僞證을 하고 있고 光州市民이 이 全 抗爭期間동안에 많은 총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잔인한 진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僞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幹事會議를 통해서 이 內容에 대한 僞證與否를 調査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앞으로 正式으로 僞證에 관한 것을 申請하십시오.

○金泳鎮委員 예.

證人은 아무리 이 抗爭 全期間동안에 총검을 사용한 일이 단 한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大劍과 곤봉에 의한 負傷者를 여기 근거를 대겠습니다. 80年5月18일부터 21일까지 全大病院 朝大病院 基督教病院 統合病院 그리고 입내과 서석병원등 市內에 있는 모든 병원에는 5月18日 24名 5月19日 69名 5月20日 70名 그리고 5月21日에 298名으로서 이 초기단계인 5月18일부터 21일까지 총검에 의한 負傷者만도 461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가 이 光州抗爭에 대한 綜合發表...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死亡者 196名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千番 양보해서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死亡者가 M16 大劍 혹은 이 곤봉에 의해서 殺害당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專門人 檢屍官들이 檢屍한 結果가 나타나 있는데 證人은 空輸部隊의 大隊長으로서 現地에 鎮壓하러 갔던 장본인으로서 총검을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들이 帶劍을 사용을 했다면 또는 총검을 사용을 했다면 中隊長이나

地域隊長들이 분명히 報告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鎮壓을 한 결과를 全體를 報告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報告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金泳鎮委員 證人! 들어 보세요. 이 戰敎司의 作戰狀況日誌도 바로 報告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 報告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報告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아까 제시했던 바로 그 곤봉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空輸部隊가 맞지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모든 空輸部隊... 아까 방금 제시한 그 곤봉을 가지고 지금 여기 光州市民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證人 金一玉 그 寫眞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金泳鎮委員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金泳鎮委員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寫眞은 제가 끄적하기 때문에 한번 證人에게 보내겠어요. 이것이 도대체 帶劍에 의한 것인지? 보세요! 이 목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大劍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예. 알겠습니다.

○金泳鎮委員 專門家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證人! 그 목에 찢린 상처는 무엇에 의한 상처입니까?

○證人 金一玉 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칼에 찢린 것 같습니다.

○金泳鎮委員 帶劍에 의해서 찢린 것 맞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寫眞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그 칼은 누가 가서 찢었습니까? 누가 이 大劍을 가지고 와서...

○證人 金一玉 그러나 18일에 저희들이 鎮壓을 한 것은...

○金泳鎮委員 證人! 18일이 아니고 全期間동안에 단 한 번도 大劍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7空輸 35大隊는 한번도 사용 안했는데 다른 大隊는 전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글썽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현재는 제가 答辯을 못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泳鎮委員 지난번 聽聞會에 權承萬證人은 나와가지고 곤봉 한번사용... 곤봉으로 격하도 록 지시한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證言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空輸部隊 大隊長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물겠습니다. 현재 全南醫大에 在職중인 오봉석教授는 80年5月19日 午後 19살이던 최미자양이 젓가슴과 등을 帶劍에 찔려 病院에 실려 왔으며 당시 바로 이 오교수가 최미자 양을 수술했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녀에 대해서 젓가슴을 바로 이 帶劍에 의해서 찔렸는데 證人은 아니라고 하시 겠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계속해서 당시 基督病院 外科醫師인 김태균씨는 이렇게 證言하고 있습니다. 21日 저녁 7時30分입니다. 銃傷患者들을 위해서 바로 30分전에 헌혈을 하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이 病院에서 돌아가던 이 청년 세 사람이 和順方面으로 떠난 후 30分後에 가슴과 대퇴부가 없어지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死身이 된 채 버스에 실려 왔을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같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가 남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空輸部隊의 銃劍에 의해서 많은 光州市民들이 病院에 미처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銃劍에 의한 負傷者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輸血하기 위해서 피가 부족해서 헌혈을 호소를 했습니다. 市民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酒店에서 생활하는 접대부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自願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남아 들었다 그러면서 이 김태균교수는 말하기를 “바로 이것은 위대한

光州市民의 精神이요 光州市民의 위대한 勝利의 한 산 證據”라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證人! 이렇게 光州市內에 이 잔인한 空輸部隊에 의해서 銃劍에 의해서 많은 死亡者와 또 負傷者가 나와서 市民들이 자진으로 헌혈 운동을 통해서 피가 남아 들 정도가 됐다고 당시 專門醫가 이렇게 證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銃劍을 사용 안했다는 사실입니까?

○證人 金一玉 예. 저희 大隊는 분명히 全期間동안에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계속 그렇게 주장하세요. 다시 물겠습니다. 證人은 5月24日 午後 光州飛行場에서 大隊長級 이상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7空輸 11空輸가 21日부터 23日까지 周南마을에서 駐屯하다가 7空輸는 「헬」機로 해서 11空輸는 陸路로 해서 철수한 후에 24日 光州飛行場에서 大隊長級이상의 指揮官들이 모인 일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金泳鎮委員 기억이 안납니까?

○證人 金一玉 예.

○金泳鎮委員 그러면 35大隊長인 證人만 참석 안했다 이것입니까? 全 大隊長이 참석했는데 ...

○證人 金一玉 그러한 기억없습니다.

○金泳鎮委員 당시 鄭鎬溶司令官이 배운 光州飛行場에서의 將校食堂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本人은 참석 안했다 이것입니까?

○證人 金一玉 거기에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별도로 어떤 밥을 먹거나한 적은 없습니다.

그 때에 光州飛行場 格納庫에서 이미 저희들은 18日부터 撤收하는 기간동안 거의 취침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잠 자느라고 오히려 더 狀況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은 참석안했다. 그 말이지요?

○證人 金一玉 예.

○金泳鎮委員 그 때에 張世東씨도 바로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空輸旅團長의 參謀中에 中領 한 분이 尹某中領

니다. 「나는 사람 죽인 후에 이 기간이 바로 끝나지도 않은 이 期間中에 司令官이 여는 그런 파티에 참여할 수 없다」하고 여기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張世東씨가 짐차를 가지고 가서 尹某中領을 강제로 태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尹中領은 거기에 참석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 파티장소에 유일하게 大隊長級인 中領으로서는 本人만 참석을 안했습니다.

光州市民은 5月18일부터 24일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鎮壓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5月24日 光州飛行場 바로 이 將校食堂과 格納庫에서 이 特戰司의 大隊長級이상 將校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일원이 나는 良心上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그런 기억없습니다.

○金泳鎮委員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證人은 5月21日 朝鮮大學에서 無等山앞에 있는 周南마을에 撤收해서 주둔한 일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예,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 周南마을에는 7空輸와 11空輸가 비록 그 위치는 달랐지만 한 地域에서 같이 주둔하고 있었지요?

○證人 金一玉 33大隊와 35大隊는 周南마을 안쪽 능선있는 좌우측에 宿營地를 편성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리고 그 상대방 후등에는 11空輸가 있었지요?

○證人 金一玉 그 옆에 3大隊쪽인가 어딘가 11旅團 本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이 때 7空輸와 11空輸가 주둔하고 있는 지점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일 가까운 지점이...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하고 33大隊하고는 약 200... 계곡이 된 상태에서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 2·300정도로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추측입니까?

○證人 金一玉 지도가 있으면 제가 지도에다가 좌표를 분명히...

○金泳鎮委員 제일 가까운 部隊는 얼마였습니까?

가?

7空輸와 11空輸의 제일 가까운 지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一玉 거기서 11空輸部隊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주둔은 안했다 그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그 안에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金泳鎮委員 21일부터 24日 撤收하기 전까지입니다.

3日동안 7空輸는 11空輸를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본 기억이 撤收할 때만 봤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그 部隊는 다른데서 이동해서 撤收했습니까? 같이 주둔하다가 撤收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차가 와서 차를 돌려서 차타고 가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왜 本委員이 이 문제를 具體的으로 묻느냐 하면요, 7空輸에 소속되어 있는 崔永信中士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양민 두 사람을 11空輸의 少領 한 사람이 처치하라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살아 있는 市民 두사람을 현장에서 즉결처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잔인한 모습을 本委員 혼자간 것도 아닙니다. 國會가 정식으로 現場調査小委員會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함께 現場調査를 나왔습니다 나가서 바로 그 良心宣言한 崔永信中士가 안내하는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그 지점을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3黨議員들이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國防部當局者 한분이 논평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전혀 流言蜚語에 가까운 얘기다 事實無根이다. 7空輸와 11空輸가 각각 주둔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7空輸의 下士官이 11空輸의 少領이 그 즉결심판하라고 지시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자체가 語不成說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정 사실이라면 현장을 한번 같이 공동으로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國民들이 참으로 지금 의문시하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하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현장에서 주둔해서 大隊長으로서 활동을 했던 證人에게 이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地圖를 펴보이며)

證人! 證人! 이 朝鮮大에서 이 無等山을 넘어서 부영산 山峯을 넘어서 바로 證人の 駐屯地域이 7空輸旅團 駐屯地 CP 139869 이 것이 좌표입니다. 이 지점에 주둔한 일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말씀하십시오.

○金泳鎭委員 答辯하세요! 주둔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주남마을 안쪽에 주둔을... 宿營地를 편성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泳鎭委員 이 지점에 7空輸旅團이 주둔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지금 현재 그 地圖로 봐서 거기에 위치를 정확히 있었다 안있었다 제가 答辯하기 힘듭니다.

○金泳鎭委員 그렇게 해서 어떻게 軍指揮官합니까?

(金一玉 혹판에 略圖를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證人!

○委員長 文東煥 證人은 묻는데 대답하세요 證人! 證人! 묻는데 대답하는 것입니다. 證人이 주동으로써 하지 못합니다. 묻는데 대답하세요.

○金泳鎭委員 本委員이 訊問하면서 證人보고 일어서서 그리란 말은 안했어요.

○證人 金一玉 제가 정확하게 答辯을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어서서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泳鎭委員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7空輸旅團이 바로 CP139869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등산 아래에 있는 두개의 계곡에 바로 相對地域에 11空輸旅團이 주둔합니다 CP1185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兩旅團間의 최대거리는 170m입니다. 아까 證人은 200m 이상 300m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가까운 최소거리는 40m입니다.

○證人 金一玉 그것이 아니구요 33大隊와 35大隊의 간격이 계곡을 해가지고 능선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1空輸의 大隊가 편성 배치되어 가지고 위치했었던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證人! 들어보세요 이 두 계곡에 주둔하고 있는 7空輸와 11空輸가 여기 헬기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40m 근접한 중간 지점입니다. 이 헬기장 여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헬기장에서 바로 문제의 살려달라고 하는 양민이 학살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누워있는 그림이 보이지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良心宜言했던 7空輸의 崔永信中士가 그런 狀況을 확인을 하고 本小員會 委員들과 우리 實務陣들과 함께 本委員도 바로 이 無等山 일대 부영산 일대를 10餘 차례 현장답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나온 이 地圖가 證人이 생각할 때 혹시 本委員이 현장에서 추정해서 그린 地圖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騷擾鎮壓과 그 敎訓이라고 하는 陸軍本部敎訓集 7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陸軍本部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바로 證人은 이 지역에서 11空輸와 7空輸와 함께 5月 21일부터 24일까지 주둔하다가 20師團과 교체를 해서 7空輸는 헬리콥터로 퇴각을 하고 11空輸는 바로 송암동 일대로 이동하는 도중에 송암동 일대의 양민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송암동일대의 양민학살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에 개최될 聽聞會에서 지난번 光州現場에서 現場檢證을 했던 근거들을 가지고 다음 聽聞會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周南마을에서 7空輸 11空輸에 의해서 행해졌던 이 잔인한 양민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내일 周南마을에서 民間人들이 證人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證人! 아무리 證人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全事態 期間동안에 단 한번도 총검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또 國防部の 相當局者가 자기의 견해로 7空輸와 11空輸가 각각 駐屯地域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유언버어다 이렇게

말했지만 歷史의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정 그렇게 당당하게 근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當局者는 本 特委의 委員들과 같이 現場을 확인할 것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金泳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證人 金一玉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계속해서 質問하니까... 마지막 것은 質問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答辯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證人 金一玉 質問만 자꾸하시고 제 말은 안들으시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완전히 결론을 다내리셔 놓고 一方的으로 하셨을때 저는 그럼 答辯을 어디다 두고 무슨 말씀을 제가 해야 됩니까?

○委員長 文東煥 그럼 答辯할 수 있게 質問으로 형성하세요.

○金泳鎭委員 그러면 방금 本委員이 제시한 이 圖表資料와 그리고 證人이 證言했던 抗爭期間동안에 단 한번도 총검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가 위치했던 곳하고 방금 죽은 사람의 위치하고는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周南마을 그 道路에서부터 저희 大隊가 宿營地을 했던 위치는 거기서부터 約 한 5·600 한 700m 정도에 떨어져 가지고 산능선에 빠져 나와있는 6부 7부 능선에 붙어가지고 양쪽에 大隊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金泳鎭委員 죽은 사람이 600m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조사한 죽은 사람이 그 地域으로부터.

○證人 金一玉 아니지요. 道路로부터 그렇습니다. 大隊가 위치한 것이...

○金泳鎭委員 두 名 죽은 것에 대해서는 證人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모릅니다.

○金泳鎭委員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길합니까?

○證人 金一玉 그것은 왜그런 것인가 하면

말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大隊의 위치가 방금 죽은 사람하고 또 11空輸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있었던 위치를 지도가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 여기 내놓을 수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무슨 얘기입니까? 이 최단거리 40m하고 최장거리 170m는 바로 軍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本委員이 말했읍니다.

○證人 金一玉 委員님! 現場에서 部隊를 지휘했던 大隊長보다 어떻게 모두 그렇게 잘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金泳鎭委員 證人! 무슨 얘기입니까? 本委員이 現場檢證을 함으로써...

답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분명히 거기에 大隊의 위치를 했던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和順은 나가는 道路로부터 大隊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33大隊하고 35大隊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읍니다.

○金泳鎭委員 委員長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확인한대로 證人이 지금 이런 식으로 本委員이 제시하고 있는 이 軍資料마저도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現場檢證小委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當局者와 앞으로 2次檢證 당시에 現場에 같이 共同調査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이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다시 문제가 再論될 것이고 現場檢證班이 있으니까 오늘 된 이 얘기 내용 速記錄에 월텐데 그것을 가지고 現場에 가서 다시 檢證해서 그래서 本 特委에 報告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訊問時間은 20분이 됩니다.

○朴泰權委員 統一民主黨 朴泰權委員입니다.

18日 02時에 朝鮮대에 證人의 大隊가 주둔을 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래서 그 學校에서 있던 學生들을 連行하게 되었는데 아까 證言하기를 23名으로 證言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23名을 連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23名을 데리고 와가지고 宿營地 옆에 앉혀놓았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에 08時頃인가 07時頃인가 잘 기억이 안남니다마는 어느 機關에서 왔는지 그 學生들을 인제를 해주었습니다.

(文東煥委員長, 金仁坤幹事와 司會交代)

○朴泰權委員 그러면 朝鮮大學에 35大隊의 最高責任者는 證人이었었고...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證人の 휘하에 支隊長이나 中隊長들이 23名을 連行했는데 그 사람들을 連行한 사람들을 어느 部隊에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른다 身柄引渡를 누가해갔는지 모른다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證人 金一玉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軍搜查機關인지 警察인지를 그때에 무슨 차를 타고 왔던가 그것까지 기억은 잘 안남니다마는...

○朴泰權委員 아니 大隊長이 大隊長 휘하의 兵들이 連行한 學生들을 신병을 인제하는데 어디서 데려 갔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여하튼 軍搜查機關인지 警察인지 그것을 잘 기억이 안남니다. 搜查機關에서 여하튼 데려갔습니다.

○朴泰權委員 23名을 그렇게 하고 指揮系統을 통해서 報告를 했습니까?

31師團에 報告를 하셨나 말이지요?

○證人 金一玉 作戰將校가 아마 報告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23名을 지금 說明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 旅團戰鬪詳報에 있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證人께서 모든 狀況 作戰內容등 여러가지 狀況을 報告할 때는 31師로 報告가 되도록 되어있지요?

○證人 金一玉 5時에서 6時에 96聯隊에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96聯隊로 報告를 하게 됩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96聯隊로 보고하면 96聯隊는 31師團으로 報告를 하고.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럼 그것은 作戰參謀가 正式報告 하니까 그 당시 狀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證人 金一玉 무슨 뜻입니까?

○朴泰權委員 23名을 連行해서 그 내용을 96聯隊를 통해서 報告를 했다는 것 안남니까? 지금.

○證人 金一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죠? 그러면 特戰司 戰鬪詳報은 언제 기록합니까?

○證人 金一玉 特戰司 戰鬪詳報記錄이라는 것은 特戰司令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泰權委員 예. 特戰司令部.

○證人 金一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지금 23名은 어디에 記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證人 金一玉 저희 旅團戰鬪詳報은 作戰이 끝나고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狀況을 하나 하나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미리 「메모」를 해 놔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에 있던 것을 報告를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글썽 作戰將校가 어떻게 기억을 해 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朴泰權委員 證人이 아까 答辯할 때는 23名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고 23名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戰敎司 戰鬪詳報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이 있을때 系統을 밟아서 報告한 資料에 의할 것같으면 그날 43名입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요?

○證人 金一玉 글썽. 저는 분명히 23名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23名 數字까지 기억하고 있는 證人이 그 兵力을 어디서 데려갔는지도 모르는 정도라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43名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3名이 맞겠습니까?

가?

○證人 金一玉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최초에 學生들을 保護措置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收去物 자체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기하고...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왔습니다. 本委員이 판단할때에는 戰敎司에 기록되어 있는것은 당시 狀況을 그대로 낱낱이 報告된 기록한 것이겠고 證人이 얘기한대로 7旅團에서 기록한 것은 後日에 「메모」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던 狀況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證人이 굳이 23名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는 資料에 43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물어본 것입니다.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에 43名으로 나와 있습니까?

○朴泰權委員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證人 金一玉 저는 23名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리고 그 연행한 학생들을 순순하게 무슨 인솔해서 병력 인솔하듯 제식훈련으로 인솔하듯 해서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연행해서 인제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 아침에 볼 때에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朴泰權委員 전혀 구타가 없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18日 낮에 오후에 시내에서 시위대 진압이 있었지요? 그때 證人의 휘하 장병들이 몇명이나 연행해 왔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몇명이 연행을 했는지는 직접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마는 거기에 任務를 마치고 朝鮮大學校에 복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잔류 대장이 보고하기를 173名인가 31師團 헌병대로 인제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朴泰權委員 173名 헌병대로 인제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은 90聯隊에 전부 보고를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작전 장교가 96聯隊나 일일이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大隊長이 직접 보고한 일은 없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大隊長이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은 작전장교가 다 일일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96聯隊長은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18日...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몇차례 만났습니까?

○證人 金一玉 딱 한번 만났습니다.

○朴泰權委員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一玉 최초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31師團에 배속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5時에서 6時 사이에 96聯隊長이 와가지고 文書命令을 주면서 35大隊 33大隊는 96聯隊에 배속전환이 되었다는 文書命令을 받았습니다. 그때 딱 한번 봤습니다.

○朴泰權委員 그것만 받고 어떤 지시사항이나 명령이 없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18日 19日을 경과하면서 證人이 오늘 證言하기를 일체 휘하의 장병들이 참 강압진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證言을 하고 있는데요 18日 오후에 그런 강압진압을 안해도 되는 정도의 시내의 상황이었다면 굳이 11空輸旅團이 왜 파견이 되었을까요?

○證人 金一玉 그때에 11空輸旅團이 파견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 大隊長으로서 11空輸旅團이 왜 들어왔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평소애 忠正作戰훈련할 때 7空輸는 光州地域을 맡도록 훈련을 하지요? 해왔었지요?

○證人 金一玉 뭐 忠正作戰에 어느 지역을 맡든지...

○朴泰權委員 아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7空輸는 大田 全州 光州를... 대개 그런 案을 잡아놓고 있던게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上級部隊에 잡혀있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런데 지금 證人이 얘기한 대로 35大隊 33大隊가 光州市內에서 시위진압을 그렇게 얘기대로 아무런 강경한 태도없이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데 또 시위대가 그렇게

연행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구타나 어떤 특수한 행위를 안했는데도 왜 11旅團이 내려왔다고 봅니까? 전혀 그것은 모르시겠습니까?

○證人 金一玉 글썽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警察로써는 시위진압을 못하니까 軍을 출동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출동을 해서 시위를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11旅團이 들어온 것은 아마 현장 실제 하고 있는 大隊長으로서는 거기에 가타 부타 하고 答辯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個大隊가 光州市를 말으면서 진압하기라는 것은 다소 어딘가 모르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泰權委員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増派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2個大隊가 들어가서 空輸部隊의 정예화된 兵力들이 示威鎮壓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적은 兵力으로 많은 示威群衆과 民主抗爭을 하고있는 學生들과 대치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디선가 그런 판단을 하고 11旅團을 보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證人도 그런 생각을 했고... 어디선가 판단을 하고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 證人이 그랬잖아요? 2個大隊 가지고는 어려웠다 하는 것을 大隊長도 느꼈다고 했으니까...

○證人 金一玉 실제 大隊를 지휘하는 大隊長이 현장에서 指揮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의 생각만 있을 따름이지...

○朴泰權委員 그렇게만 證言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으로 2個 大隊로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31師團에서 판단했건 戰敎司에서 판단했건 또 特戰司에서 판단했건 保安司에서 판단했건 어디선가 光州의 民主抗爭運動의 示威鎮壓하기 위해서 11旅團을 추가로 보내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證人같은 현장에 파견되어있는 大隊長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파견됐다고 봐야겠지요? 그렇게 된 결과고... 그것을 부인할 필요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11旅團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는 제가...

○朴泰權委員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지요?

○證人 金一玉 글썽요...

○朴泰權委員 아니 글썽요가 아니라...

○證人 金一玉 제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2個大隊가 진압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어딘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證言은 아까 들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은 證人の 생각이고 더 증파한 것은 本委員의 판단에서 證人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본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19일에 또 3空輸가 증파됩니다. 그렇지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3空輸가 또 내려오지요?

○證人 金一玉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날짜는...

○朴泰權委員 19日 04時에 證人の 大隊 어느 部隊로 배속이 되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19日 말입니까?

○朴泰權委員 19日 04時에...

○證人 金一玉 11空輸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11空輸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1空輸와 같이 작전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11空輸旅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 있었었습니다. 19日 낮에... 04時서부터...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데도 또 3空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1空輸하고 7空輸의 35大隊하고 33大隊하고 하면 大隊가 여러 大隊지요? 數字는 保安上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그 여러 大隊가 光州市內를 民主抗爭을 부르짖는 市民을 진압하려 들어갔는데도 또 1個旅團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一玉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答辯을 드릴 게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泰權委員 당시 大隊長 이라면 지금 大領의 입장에서 온國民이 신망하고 믿어야 할 또 믿음을 받아야 할 이나라의 陸軍大領이

소신없는 答辯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때의 大隊長 이라면 분명히 그 大隊員들을 장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11旅團長에게 분명하게 報告했어야 되고 作戰會議도 했을 것이고 한테 이렇게 지금 무책임하게 答辯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質問한대로 11旅團과 7空輸旅團의 몇개 大隊가지고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다든지 부족했었다든지 이렇게 證言해야 진실된 證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空輸가...

○朴泰權委員 그것도 전혀 모릅니까? 3空輸가 내려온 것도...

○證人 金一玉 3空輸가 내려온 것이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위에서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11空輸에 속해 있던 35大隊長으로서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3空輸가 오기전에...

○證人 金一玉 그 당시 제 大隊 상황만 본다면 11空輸와 배속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11空輸가 와 있어도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지요?

○證人 金一玉 예.

○朴泰權委員 특히 이 資料에 볼 것 같으면 11空輸에 배속된 35大隊는 그날 19日 제일 많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계속 변했어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21日 상황을 묻겠습니다.

아까 圖表를 놓고 설명도 하셨는데 그날 實彈을 35大隊는 몇발이나 받았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 받은 實彈이 정확하게 몇발인지는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납니다.

○朴泰權委員 大隊長하고 中隊長 즉 팀長에게 10發씩 가지라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아까... 證言하실 때 그랬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35大隊가 가진 實彈은 몇발이다.....

○證人 金一玉 한 탄통정도 받았는가 아마...

○朴泰權委員 한 탄통... 숫자로 따진다면?

○證人 金一玉 그것은 글세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기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내락으로 얘기합시다. 내락...

○證人 金一玉 글세요. 한 100餘發...

○朴泰權委員 200餘發되지요?

○證人 金一玉 한 150發정도...

○朴泰權委員 200餘發되지요?

○證人 金一玉 100餘發정도 될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100餘發 이상 넘고 200餘發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60發 150發...

그런데 그 道廳 앞에서 그날 1時半頃에 集團發砲가 있었고 또 證人이 관망하고 있던 地域쪽에서도 發砲한 일이 있지요?

○證人 金一玉 최초로 위치해가지고 있던 地域이 저희 大隊地域위치였는데 그때 裝甲車가 올라오고 나서는 그 地域이 一帶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大隊뿐만 아니고 그 4個大隊가 거의 혼란이 된 상태에서 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證人 大隊 그 支隊長이나 팀長들도 發砲를 했지요?

○證人 金一玉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버스가 올라올 때 射擊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射擊한 것으로 안다는 것은 大隊長이 모르는 사이에 地域隊長이나 팀長 소위 中隊長이 임의로 發砲를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 상황으로서는 초긴장상태로서 다급했기 때문에 아마 射擊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이것 보세요. 증인! 大隊長으로서 그 수많은 示威群衆이 있는데 指向射擊을 했던 어떤 射擊을 했던 그휘하의 支隊長이나 팀長이 發砲를 했다면 지금 그렇게 미묘한 證言을 해서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 發砲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줬다든지 정말 上級部隊에서 내려온 自衛權發砲가 곧 있었으니까 그것을 핑계삼아서 얘기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그 내용을 上級部隊에 報告도 해야 되고 그 밑에서 총성이 났었다면 아무리 혼선이 왔다 하더라도 거기 61大隊 62大隊 63大隊 35大隊 大隊長이 있고 精銳部隊들입니다. 그 規律上 얼마든지 支隊長

집합시켜놓으면 얼마든지 누가 쏘았는지 몇발 쏘았는지 어디서 먼저 쏘았는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흐릿터분한 얘기로 이 자리를 비킬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發砲한 것으로 생각한다.

○證人 金一玉 委員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時間的인 여유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兵力이 죽었던 그 당시에 裝甲車가 있고 죽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긴장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時間的인 여유를 가지고 할 정도는 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證人! 그 이전에 31師團兵力은 철수한다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분명히...

그러면 굳이 35大隊를 비롯한 다른 大隊들이 끝까지 示威群衆과 맞대고 있어서 결국은發砲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 정당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그 示威隊를 맡고 있던...

○委員長代理 金仁坤 마지막으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權委員 戒嚴軍들이 철수하는 것이 나왔었던것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그런데 裝甲車가 올라오고 최초의 총소리가 나면서 示威群衆은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것이 벌써 銃聲에 의해서 전부 빌딩의 골목이나 이런 곳으로 다 숨은 것이지요.

○證人 金一玉 裝甲車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朴泰權委員 裝甲車가 올라온 뒤에 銃聲이 나고...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大隊長들 旅團長들 師團長들이 협의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훈련받은 軍人들이 좀 후퇴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후퇴를 못한 입장에서 결국은 막바지 위기에서 部下들이發砲를 했다. 나는 모른다... 그發砲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證人 金一玉 軍에서는 모든 것이 指揮官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朴泰權委員 指揮官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면 證人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요?

○證人 金一玉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泰權委員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一玉 예. 어느 大隊가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道廳앞에 있었던 大隊長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朴泰權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고맙습니다. 朴泰權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尹在基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15분이 되겠습니다.

○尹在基委員 金一玉證人! 證人은 우선 證人께서 생각하실 때 光州의 抗爭에 관해서 大韓民國 國軍으로서 느끼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質問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光州事態에 관해서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證人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光州事態 光州市民의 抗爭이 일어났던데 대한 명예회복을 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당시 光州市民에게 상당한 살상을 가했던 空輸部隊 大隊長의 입장으로서 지금 光州市民에게 보내는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證人 金一玉 光州市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尹在基委員 예.

○證人 金一玉 軍이 光州에 戒嚴軍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軍의 입장으로서의 上部의 명령을 받고 그 地域 師團長의 명령을 받고 軍人으로서 임무수행은 正常的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光州市民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그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서로가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尹在基委員 제가 한 마디 證人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 보겠어요.

2次大戰後 猶太人 600萬을 살해했던 「아이히만」이 잡혔습니다.

軍裁에 회부되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猶太人을 化學工場인지 뭐하는 殺害工場인지 뒤에 보낸적 밖에 없고 죽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光州에 투입되었던 空輸部隊의 과잉진압으로 인해서 光州事態가 큰 民衆抗爭으로 확산되었고 그 외에 일부 政治軍인들이 80年度 民主化 봄을 위한 國民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3金を 제거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해서 空輸部隊를 활용했습니다.

大田地域은 32大隊를 파견시켰고 그것은 우리黨 金鍾泌總裁를 不法拘束하면서 不正蓄財로 몰아서 不名譽除隊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大田에 상당한 항거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光州地域과 全州地域 마찬가지로 金大中總裁를 國家保安法으로 拘束하면서 일어나는 抗爭에 대해서 무자비한 空輸部隊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 空輸部隊의 忠情作戰속에는 초견박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엄연히 空輸部隊 역시 大韓民國 軍隊고 大韓民國의 戒嚴軍으로서 戒嚴布告令을 執行하는 이외에 業務는 없습니다. 戒嚴布告令의 10號를 보면 政治集會禁止하는 것을 위반하는 者는 令狀없이 체포 구속하는 權限만 證人은 任務賦與를 받고 간 것입니다.

證人이 5,000 1萬 10萬씩 民主化熱氣에 불타있는 光州市民을 證人의 部隊로 하여금 無差別 鎮壓棒으로 구타할 權限 자체도 證人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證人은 道廳앞 發砲事件에 가서 正當防衛라고 생각했는데 그 正當防衛를 어떤 경우를 證人은 正當防衛로 알고 여태까지 軍務에 臨해 왔으며 배워왔습니까?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저는 지금까지 軍隊生活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身體나 生命 또는 財產을 自衛的으로 保護할 수 없이 어떤 強壓에 의해서 되었을 때는 사용을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또 勤務者가 이러한 任務遂行中에 도저히 그 사용을 하지 않고 그 任務를 完遂할 수가 없을 때에 그럴 때에 正當防衛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尹在基委員 證人이 法律家가 아니기 때문에 正當防衛 概念을 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

지만 正當防衛라는 것은 긴급한 상태에서 자기자신을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입장에 있을 때 正當防衛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正當防衛인 한 行爲는 최소한 이어야 되기 때문에 戒嚴訓令 11號를 보면 軍이 自衛權과 正當防衛와 같은 用으로 銃器를 使用할 수 있으며 下腹部를 貫通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證人은 空輸部隊가 애초 金馬를 出發해서 이 朝鮮大學에 또 全南大學에 投入될 때 33大隊와 함께 같이 올 때 證人의 部隊들은 個人當 60發의 實彈을 所持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긴급한 狀況속에서 軍人이 銃器를 使用할 때 그 狀況과 方法을 명백히 部隊員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마땅한 證人의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證人은 막연히 그 勇氣와 士氣만을 충천시켰던 空輸部隊 隊員들에게 銃器 實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긴박한 狀況속에서 그 末端部隊 要員들은 특별한 판단없이 相對方을 死殺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35大隊 指揮官이고 大隊長으로서 銃彈을 나누어주는 사실을 묵인한 입장에서는 명백히 市民에 대한 殺人의 共犯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證人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大隊長으로서의 저기에 있는 實彈들을 그 당시에 携帶를 시키지 않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났던 21日 일어났던 狀況에서 우선 銃聲이 나고 또 이리다가 보니까 隸下 中隊長들이 31師團 나가는 兵力으로부터 뭔가 들고 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서 携帶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급박하고 그 당시의 狀況이 흥분된 그런 狀況에서 31師團 兵力으로부터 획득된 實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携帶가 된 것입니다.

○尹在基委員 某雜誌를 보면 이렇게 말한 士兵이 있었습니다. 光州事態 鎮壓에 참여했던 한 士兵은 軍隊의 作戰이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自國民을 對象으로 한 것이라 해도 基本的으로 상대를 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任務의 성취와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軍의 戰爭概念에서 나
은 軍의 머리 속에 있는 精神武裝입니다.

그렇다면 수십萬 民主化熱氣에 의해서 光州
市民들이 爆發的인 挫折感을 解消키 위해서
일어나는 示威를 아까도 朴泰權委員이 얘기한
바와같이 2個大隊를 破散해서 그것을 鎮壓하
라고 한 것은 鎮壓棒이라든지 銃劍을 통해서
라도 相對方을 무참히 공포에 몰아넣어가지고
示威를 中止하도록 하는 그런 당초의 作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그러한 命命을 받거나 했는
것은 現地 師團長님한테 직접 최초로 命命을
받았지 그 이전에 어떤 命命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러면 證人은 31師團長이 죽음을
무릅쓰고 目的을 任務를 遂行하라고 하는
얘기는 包括的으로 鎮壓棒이라든 大劍을 통해
서 光州市民을 무참히 刺傷하면서 또 수단
方法을 가리지 말고 공포를 주어서라도 데모
示威를 鎮壓하라는 그런 趣旨로 받았다는 얘
기입니까?

○證人 金一玉 그 鎮壓의 意志는 강한 것으
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尹在基委員 鎮壓의 意志가 강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證人으로서
는 大隊長의 立場에서 總責任을 지는 立場에서
鎮壓의 方法이라든지 鎮壓의 具體的인 計劃이
라든지 하는 것을 밑의 部隊員한테 시달렸어
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計劃도 없이
마지막 그냥 가서 鎮壓하라 이렇게 막연한
명령만 내리는 것이 作戰命命입니까?

○證人 金一玉 그런데 師團長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밑의 「팀」長이나 「팀」員들한테 전
달을 안했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러한 師團長 얘기는 「팀」員한
데 전달하지 않고 作戰配置만 했다는 말입니
까?

○證人 金一玉 그래서 제가 教育시킨 것이
바로 個別的인 行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와 같은 教育을 누차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教育을 시켜서 나갔기 때문에 師團長님께
서 말씀하신 그 강한 意志의 표시는 하지
않았읍니다.

○尹在基委員 證人! 지금 수많은 軍人들이
證人의 證言태도나 모든 것을 보고 있음

니다. 證人은 光州抗爭에서 희생된 空輸部隊
英靈들에게도 명예를 回復해야 될 의무가 있
읍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光州抗爭은
民主化 熱氣를 좌절시키고자 했던 政治軍人의
치밀한 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證人은 당시 政治軍人도 아니고
空輸特戰團의 한 所屬 大隊長으로서 어떤 면
의 희생된 사람의 일종입니다. 지금 술한
軍人들은 證人의 陳述 태도를 보고 證人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軍人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證人의 이러한 政治軍人의 下手人으로서의
立場에서 벗어나서 진정 軍人의 명예를 回復
하는 立場에서 당시 軍人의 처사라든지 모든
일들이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良
心宣言할 생각은 없습니까?

○證人 金一玉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은 政治軍人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아마 相反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軍隊生活을 하면서 上
官에 대한 命命에 절대 복종한다는 그것이
바로 제 生命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만약에 제 任意대로 出動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師團長님으
로부터 命命을 받아서 出動을 했고 그 出動
命命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命命이 되다
보니까 光州市民들도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더 과격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지금 현재
얘기도 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命
命遂行過程中에서 분명히 어떠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政治軍人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答辯드리기는 좀 이상하게 들
립니다.

○尹在基委員 제가 생각하는 것은 證人立場이
소위 陸軍大額으로서의 양식있는 軍人으로서의
높여서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이
일개 下士나 中士로 上部의 命命에만 기계처
럼 움직이는 그러한 將校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證人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金一玉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
고 答辯을 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所信
과 그때 있었던 狀況을 오늘 이 자리를 통

해서 赤裸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러면 光州에서의 空輸旅團들의 행동들에 過剩鎮壓이 전혀 없었다고 證人은 판단합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警察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示威鎮壓에 있어서 示威擴大를 방지를 하는 입장이고 軍人은 警察이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示威를 鎮壓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軍이 出動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公權力으로서의 최후의 보루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軍人이 밀렸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治安이 없는 不在狀態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代案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命을 遂行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돌아서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이러쿵저러쿵 오늘에 있었던 事項들이야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尹在基委員 그렇기 때문에 證人!

○證人 金一玉 그러한 것을 갖다가 連行過程에서 좀 다소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 할지언정 그것을 過剩鎮壓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尹在基委員 證人은 지금 모든 證言의 태도가 진정한 軍人으로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마치 被疑者 입장에서 否認하는 입장에서 모든 證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關係 作戰日誌라든지 證據에 비추어봐도 證人 얘기는 명백히 僞證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가사 證人이 그러한 證言態度가 바뀔 수 있기를 바라면서 訊問을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尹在基委員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金吉弘委員의 訊問時間입니다만 2時間이 경과하는 까닭에 10時1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時間이 조금 초과되었기 때문에 시작 時間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1時58分 會議中止)

(22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仁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金吉弘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10分입니다.

○金吉弘委員 民主正義黨所屬 金吉弘委員입니다.

證人은 80年5月 發生했던 光州 일원의 극렬한 示威와 武裝示威 등을 당시에 光州市民의 民主化運動으로 생각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에 제가 出動을 한 것은 民主化인지 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事項이었읍니다.

○金吉弘委員 당시에는 戒嚴布告令에 의해서 光州市 一圓에도 戒嚴當局의 허가없이는 示威나 集會가 금지되었었지요?

○證人 金一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렇다면 5.18 光州狀況당시 證人의 部隊가 上官의 作戰命令에 따라 示威를 鎮壓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軍人으로서 命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은 光州市의 鎮壓現場 즉 光州市內에 出動했던 軍將兵가운데 階級이 가장 높았던 一線指揮官이었읍니다.

앞으로 만약 光州問題의 真相調查結果 證人에게 指揮責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相應하는 責任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光州事態期間중 證人이 指揮했던 35大隊가 示威를 鎮壓하는 과정에서 銃劍과 帶劍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되풀이해서 證言을 했읍니다. 아까 金泳鎮委員께서 質問을 했읍니다마는 5月18日 晝間作戰을 終了한 후 證人의 部隊인 35大隊는 20時頃 어디에 位置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는 16時부터 19時까지 市內에 있다가... 그 이후는 19時까지 朝大에 復歸를 했읍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저녁 8時頃에는 朝鮮大學校에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그 朝鮮大부근에 示威隊가 있었습니까? 당시...

○證人 金一玉 저희가 朝鮮大學校에 들어 오고서 그 주위에는 示威隊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아가 金泳鎭委員께서 제시한 戰敎司作戰 狀況日誌에 5月18日 20時15分 카톨릭센터앞의 銃劍鎭壓이라는 記錄은 證人의 部隊와는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20時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여기 陸軍本部가 本特委에 提出한 特戰司 戰鬪詳報를 보면 5月18日 作戰結果를 보면 30空輸團 33大隊는 16時30分 作戰을 終了했고 35大隊는 19時에 作戰을 終了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部分은 무엇인가 記錄이 잘못된 것으로 本委員은 判斷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가 沈明輔委員께서 質問한 내용 가운데에 이어서 5月21日 午後 道廳앞 狀況이후의 것을 訊問하겠습니다. 5月21日 午後 道廳앞에서 證人이 指揮한 35大隊는 언제 어디로 撤收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들이 道廳앞에서 16時에서 17時頃사이에 11旅團으로부터 朝鮮大學校로 復歸를 해라 하는 그러한 命令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朝鮮大學에 도착한 것은 아마 18時頃으로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朝鮮大學에 18時頃에 도착을 하니 33大隊가 朝鮮大學을 警戒를 하고 있었던 그 狀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3大隊長이 輜重車에다가 輜重을 모두 싣고 19時까지 朝鮮大學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大隊는 거기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彈藥을 처음으로 分配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大隊가 出發을 하려고 그러는데 朝鮮大學校에 있는 그 本館으로부터 數發의 實彈의 洗禮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出發을 못하고 일단 隱蔽를 했다가 다시 1個地域隊를 내보내가지고 實彈소리가... 銃소리가 나는 곳으로 兵力을 보내서 通路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 大隊가 제일 앞 先頭에 나가고 그 다음에 33大隊가 大隊後尾에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朝大뒷산 그 稜線있는 部分

을 막 넘어 가려고 그러니까 全南醫大方向에서 케리바-50소리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이 막 더러 射擊을 하질래 거기에서 또 신속하게 그 稜線을 通過를 해서 주담쪽으로 07時30分인가 들어갔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의 部隊員들에게 實彈을 支給한 時間은 언제였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것은 朝鮮大學校에 到着을 해서 撤收를 해가지고 朝鮮大學에 到着을 해서 19時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33大隊長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實彈을 分配를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朝鮮大學에서 撤收할때 戒嚴軍의 死傷者는 없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死傷者는 없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그 이후에 證人의 部隊는 어떤 任務를 遂行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주담에 07時頃에 到着을 해서 宿營地를 編成을 하고 그 地域에서 계속 休息을 하고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오늘 오전 金泳鎭證人이 이 자리에서 戒嚴軍과 示威群衆이 대치해 있을 때나 혹은 戒嚴軍이 示威鎭壓에 나섰을때 市民들이 저항하지도 않았고 投石을 하거나 角木을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無差別 毆打해서 市民들을 負傷하게 했다고 證言했습니다. 직접 示威鎭壓에 나섰던 現場指揮官으로 證人께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언제 時間을 말씀을 하십니까?

○金吉弘委員 18日狀況일 것입니다. 아마...

○證人 金一玉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警察系統에서의 兵力要請을 거절을 하고난 뒤에는 師團長의 命令을 받고 저희들은 示威軍衆鎭壓을 위해서 退路를 뚫다. 道路에서 遮斷을 해가지고 到着을 하니 거기에서 제가 到着을 하고난 뒤에 配置하고난 뒤에 그 다음에 宣撫放送을 해서 하는데도 계속 自進歸家가 없고 돌로써 강력하게 저항이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마지막 訊問하겠습니다. 第6共和國 樹立以後 光州事態는 처음으로 民主化運動으로 性格이 規定되고 있는데 지금 證

人께서는 光州事態의 性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一玉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軍의 입장으로서의 命令을 받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事頂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答辯드리기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示威鎮壓에 나섰던 戒嚴軍의 名譽가 회복되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것은 분명히 軍命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戒嚴軍에 대한 어떤 罵倒가 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마지막 質問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弘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끝나셨어요? 金吉弘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5분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證人!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證人들 예를 들어서 證人의 指揮官인 尹興禎司令官이나 그 다음에 蘇俊烈司令官이나 李煥性戒嚴司令官이나 그 이외에 오늘 나온 被害者 여러名하고 또 金泳燁記者 또 그 동안 나온 證人들중에서 目擊者인 金宗培證人 徐銘源證人 이와같이 우리 光州特委가 그 동안 調査한 여러 證人들이 하나같이 이 光州抗爭은 초기의 過剩鎮壓으로 인해서 이것이 示威가 격화되었고 또 이와같이 큰 被害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是認을 바로 證人이 앉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유독 權承萬證人이나 그 당시 現地 大隊長立場에서 過剩鎮壓이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이 이 過剩鎮壓部分에 관해서는 그동안 나온 여러가지 資料를 토대로해서 이것이 過剩鎮壓임을 우리 特委에서 認定하고 있는데 거기에 反해서 證言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證人 金一玉 委員님께서 저보고 그때의 鎮壓이 過剩鎮壓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師團長님으로부터 命令을 받고 出動을 해서 退路 즉 말하자면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이 逮捕連行하라는데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이 原因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 얘기는 鄭 雄師團長이 죽음을 무릅쓰고 示威를 鎮壓해라! 모든 責任을 내가진다. 이와같은 命令을 證人에게 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過剩鎮壓의 結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自認하고 있는 것입니까?

○證人 金一玉 저 자신으로서는 나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過剩鎮壓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限度內에서의 鎮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오늘 證人이 여러 委員들이 提示한 寫眞을 많이 보았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銃劍에 찔린 寫眞 또 구타당하고 있는 寫眞 또 죽은 寫眞 또 金泳燁記者가 자기의 東亞日報支社 事務室에서 總務가 空輸部隊로부터 당한 그러한 狀況... 제가 그 이외에도 오늘 나온 證人들만 해도 여럿입니다.

이와 같은 狀況을 본다고 하면 常識의으로 一般人들이 그것을 정당한 鎮壓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떻게 證人만 그것이 정당한 鎮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一玉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師團長님의 命令이 그렇게... 退路를 차단을 해서 鎮壓을 하고 보니까 서로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마는 그것을 또한 過剩鎮壓이라고까지는 제 軍立場으로서는... 現場을 指揮한 大隊長 立場으로서는 過剩의 行爲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은 證人의 獨斷의인 判斷입니까?

○證人 金一玉 部隊를 그렇게 제가 指揮를 했고 또 저희 部隊員들을 그렇게 또 運用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와같은 狀況을 證人이 직접 목격한 일도 있었을 터인데 지금 否認하고

있으니까 그와같은 狀況을 본다면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過剩鎮壓이다 하는 것은 극히 常識的인 일에 속합니다. 이것을 證人이 國會特委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否認한다고하는 處事는 證人이 責任을 免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열한 偽證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證人 金一玉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光州事態의 責任을 回避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部隊를 指揮를 하면서 제 部隊가 어떤 過誤가 범해 졌고 어떤 것이 밝혀지면 現場指揮한 大隊長으로서 指揮官으로서 분명히 責任을 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軍이 그 作戰指揮의 勝敗에 따라서는 항상 指揮官이 責任지는 것이 바로 우리 軍隊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具體的으로 5月18日 午後 4時에 證人이 指揮하는 35大隊가 錦南路 주위의 示威隊를 遮斷하는 그러한 任務에... 示威의 逃走路를 遮斷하는 그러한 任務에 從事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와 같이 示威隊의 逃走路를 차단하려고 하면 결국은 逃走하는 그러한 示威群衆을 逮捕해서 連行을 해야 된다고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는데 그런 경우에 逃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잡느냐 鎮壓棒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金泳燁記者가 쓴 10日間の 取材手帖 25페이지 사진을 여기 보니까 이 銃劍을 어깨에다... 뒤에다 對角線으로 멘 것이 아니고 손으로 앞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銃劍... 銃에다가 帶劍을 着劍해서 찌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日 柳洞 삼거리에서 證人麾下의 部隊가 配置가 되었지요?

○證人 金一玉 柳洞 삼거리가 어디쯤 되는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됩니다.

○趙洪奎委員 共用「터미널」에서요. 錦南路 들어가는 入口.....

○證人 金一玉 그렇다면 松汀里쪽으로 나가는 道路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趙洪奎委員 錦南路가 시작되는 삼거리...

○證人 金一玉 저희 大隊는 거기까지 내려간 일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18日은 證人이 指揮하는 35大隊하고 또 權承萬證人이 指揮하는 33大隊 그 두 大隊만이 示威鎮壓을 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權承萬證人은 자기는 柳洞 삼거리에 配置된 일이 없다 이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證人이 指揮하는 35大隊가 그 柳洞 삼거리에 있었는데 그 柳洞 삼거리의...

中隊長이 그 部隊員들에게 얘기하기를 거리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全員 逮捕하라 이렇게 命令했다고 金泳燁證人이 오전에 證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報告받은 적이 없습니까?

○證人 金一玉 報告받거나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大隊가 道廳앞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道路가 몇 개나 됩니까?

○張石和委員 그와 같은 命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鎮壓뿐만 아니고 무조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서 連行해라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連行方法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폐기가 왕성하고 訓練이 잘된 軍人이라 하지마는 그렇게 돌지각하게 命令을 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지난번에 나온 權承萬證人의 證言에 의하면은 자기 部隊에서는 칼로 찌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證人도 證人部隊에서는 칼로 찌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8日 칼로 찌른 刺傷患者가 많이 생겨서 病院에 많이 引導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33大隊도 칼로 찌른 일이 없고 證人麾下의 部隊도 칼로 찌른 일이 없고 그럼 어느 部隊가 칼로 찌렀습니까?

○證人 金一玉 글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16時에서 19時에는 朝鮮大學校에 復歸를해 가지고 그날의 會議와... 그 다음에 저는 31師團 作戰會議에 21時頃에 들어갔습니다.

(金仁坤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張石和委員 분명히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過剩鎮壓問題도 그렇고 지금 칼로 찢은 그러한 狀況도 그렇고 權承萬證人이나 證人이나 들중에 한사람이 僞證을 하고 있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責任을 모면하려고 僞證을 하면 안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지요?

○證人 金一玉 저는 여기에 聽聞會에... 國會에 나와가지고 證人으로서의 명확하게 있었던 그 現場 그대로를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코 大韓民國의 陸軍 大領으로서의 名譽를 가지고 지금 현재 答辯을 드리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軍人の 名譽를 證人이 중시한다고 하면 證人の 部下였던 軍人들이 지금도 證人の 證言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部下들이 우리 事務室 또 다른 委員事務室에 證人을 비롯한 指揮官이 僞證을 많이 하고 있다 철저히 가려내다오 라고 하는 提報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軍人들 證人の 部下였던 사람들이 사람들은 證人 등 指揮官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점을 證人께서 잘 염두 두셔서 지금부터라도 僞證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特戰司令官 鄭鎬溶씨가 나와서 初期鎮壓狀況에 관해서 現地 大隊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았다 이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18日 現地 大隊長은 權承萬大隊長과 證人뿐인데 이중에 누가 鄭鎬溶씨한테 이런 報告를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 당시에 特戰司令官님께 어떻게 陸軍中領이 감히 몇 階段을 넘어서 또 더군다나 光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特戰司令部에 報告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常識적으로도 納得이 안 가는 문제고 저희는 분명히 31師團長님으로부터 命令 받고 出動을 했고 그와 같은 狀況들을 31師團 系統에서 報告가 됐지 저희 大隊나 大隊長은 몇 階段 넘어서 報告할 수 있다는 그런 「채널」의 관계는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鄭鎬溶씨에게 그 이후에 鎮壓을 한 다음에 혹시 報告라도 한 일이 없습니까?

○證人 金一玉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鄭鎬溶씨 證言이 僞證이

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證人 金一玉 글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鄭鎬溶씨가 僞證을 하거나 아니면 證人이 僞證을 하거나 權承萬證人이 僞證을 하거나 틀림없이 指揮官중에서 누가 僞證을 하고 있습니다. 鄭鎬溶씨 證言과 證人の 證人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5月21日 道廳앞 發砲狀況에 관해서 證人은 正當防衛라고 強辯하고 있습니다. 과연 正當防衛인지의 與否를 제가 金泳燁證人の 證言을 基礎로 해서 묻겠습니다.

金泳燁證人은 午前에 바로 그 자리에서 太極旗를 휘날리고 있는 5·6名의 示威群衆들을 향해서 戒嚴軍이 대여섯차례 照準發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狀況이 證人이 얘기하고 있는 正當防衛입니까? 證人! 그 狀況을 못봤습니까?

○證人 金一玉 어느쪽 狀況입니까?

○張石和委員 道廳앞 發砲狀況입니다.

○證人 金一玉 道廳도 道廳의 위치에 따라서 볼 수가 있고 못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읍니다. 錦南路狀況은 제가 모릅니다. 저는 道廳 左側에 있는 울타리를 연해서 忠壯路로 和順方向인가 그쪽으로만 市民들하고 이렇게 약 1·2m로 對峙해가지고 있는 狀況이었지 만약에 그때에 裝甲車가 분수대를 들지 않고 바로 나갔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 大隊나 光州市民이나 거의가 한 이삼백여명은 완전히 죽거나 負傷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金泳燁證人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狀況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正當防衛가 아니지요?

○證人 金一玉 글썽 그것은 거기에서 감히 무슨 표적을 어떻게 보고 射擊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照準射擊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본 일도 없다고 하면 證人の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狀況이라고 하면...

○證人 金一玉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를 저한테 提示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필요한 答辯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質問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金泳燁證人이 한 證人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狀況이라면은 그것은 證人이 얘기하고 있는
正當防衛狀況이나 이것을 묻습니다. 이다 아
니다만 대답하세요.

○證人 金一玉 글썽요. 그 錦南路狀況에 대
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 제가 言及을 할 수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리고 證人 部隊가 發砲하기
전에 證人 麾下의 部隊員들이 다치거나 死亡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저희 部隊에는 다친 사실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지요?

○證人 金一玉 예.

○張石和委員 그 당시에 버스가 들진했던 것
은 證人 部隊를 물리치게 할 目的으로 撤收
시킬 目的으로 버스가 들진하게 된 것이지
요?

○證人 金一玉 그 당시에 現場 大隊長으로서
봤을 때는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덮쳐가지고 被害를 입히
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錦南路에서 裝甲車가 올라와가지고 그러한 狀
況이 벌어졌고 다음 두번째로는 大型버스가
올라올 때에 그 주위에는 4個 大隊가 있었
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大隊가 했다 어느
大隊가 뭐 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張石和委員 錦南路狀況이 아니고 證人이 證
人部隊에서 發砲한 狀況을 本委員이 묻는 것
입니다.

○證人 金一玉 글썽요. 저희 大隊에서 發砲
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張石和委員 아까 證人이 發砲한 일도 있다
고 是認하지 않았습니까? 證人의 部隊에서...

○證人 金一玉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면 뭔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地域에는 4個 大隊가 거의가 超緊張狀
態에서 왔다갔다 하고 혼잡이 일어난 상태였
었기 때문에 어느 大隊가 어떻게 射擊을 했
는지는 모르지마는 射擊은 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도 분명히 아까 朴泰權委員
의 訊問에 發砲責任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證人이 그와 같은 證言
을 하는 것은 證人部隊의 部隊員이 그와 같
은 發砲를 했기 때문에 發砲責任을 指揮責任
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現場에 部隊를 指揮했던 指揮官이기 때문에
指揮官으로서의 責任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張石和委員 그 당시 아까 다른 委員도 얘
기를 했지마는 이 正當防衛가 되기 위해서는
相當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相當성이
라고 하는 것은 뭐냐 本委員이 判斷하건대는
證人 部隊가 撤收했어야 됩니다. 어디 非武
裝市民에게 무자비하게 發砲를 한 것이 그것
이 正當防衛입니까? 그것이 相當성이 있습니
까 어떻습니까?

○證人 金一玉 現場 大隊長으로서의 그때의
狀況은 긴박하고 超緊張狀態에 있었읍니다마는
撤收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은
狀況報告를 듣고 上級部隊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現場 大隊長으로서의 그것을 任意대로
撤收할 수 없는 것이 바로 軍隊로 지는 생
각하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바로 撤收하는 문제도 이것이 正當防衛의
하나인데 撤收하는 문제도 證人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은 거기 더 나아가서 發
砲라고 하는 문제도 證人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
습니까? 現場에서 大隊長이 어떤 射擊命令을
내리거나 했던 狀況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협스럽게 裝甲車가 나타나
면서부터 射擊이 이루어졌고 射擊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에서 射擊이 났는지는 모르지마는
銃聲이 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31師團이
撤收를 할 때에 實彈이 없기 때문에 획득을
해서 分配된 것하고 그 다음에 그후에 바로
「버스」가 威脅的으로 저희들한테 갑자기 부딪
치기 때문에 어느 누가 射擊을 했는지는 모
르지마는 射擊을 했기 때문에 제가 射擊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指揮官들이 어디 감히 그 자리에서
射擊을 해라마라 하고 命令할 指揮官이 거
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陸軍

中領으로서는 감히 그와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아까 證言할 때에 그 部隊員들이 實彈을 받길래 支隊長까지만 받도록 하고 거기에 관해서도 正當防衛 限度內에서 그 實彈을 쓰도록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이 바로 發砲命令입니다.

○證人 金一玉 그게 發砲命令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發砲命令이 별달리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어떤 物體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命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對侵透作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物體가 나타나 가지고 확인이 되었을 때 目標物에 대해서 “射擊開始!” 할 것 같으면 射擊이 되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實彈 지급을 허용한 자체가 이것이 發砲許可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 常識의인 얘기를 부인합니까? 證人이 發砲建議를 上部에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一玉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發砲建議 한 일도 없어요?

○證人 金一玉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와 같은 證人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그러면 發砲 建議를 안했으면 撤收를 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와같이 實彈 지급을 허용하고 發砲命令까지 내렸다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證人 金一玉 최초로 裝甲車 사격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裝甲車가 올라오고 또 사람이 죽고 負傷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銃소리는 이미 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서 어느 將校인지 어느 누구가 여하튼 획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31師團으로부터 撤收兵力으로부터 實彈을 인수를 했지 저희들이 實彈을 지급해서 가지고 가서 射擊을 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崔 雄旅團長의 證言에 의하면 大隊長이 發砲 建議를 했다고 했습니다. 證人이 發砲 建議를 한 거지요. 그것 자꾸 부인할 것 없어요.

○證人 金一玉 저는 안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35大隊로서의 11旅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또 제가 11旅團長님한테 發砲를 할 수 있도록 建議할 입장도 他 所屬部隊로서 배속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아까 정당한 發砲行爲라고 단정을 했는데 本委員이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가지 문제 金泳燁 證人의 證言에 다른 그러한 상황 또 가사 證人部隊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撤收를 했어야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發砲를 한 것은 상당성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道廳 앞 發砲狀況은 證人이 얘기하는 正當防衛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證人 그래도 正當防衛라고 強辯할 생각입니까?

○證人 金一玉 委員님! 저는 그렇습니다. 軍人으로서 陸軍中領 어떤 作戰任務를 遂行하는데 任意대로 撤收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내 목숨이 아깝고 내가 죽으면 안되니까 任意대로 撤收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軍組織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감히 陸軍中領이 어떻게 제 任意대로 마음대로 撤收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張石和委員 證人은 분명히 撤收도 證人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實彈支給狀況이라든가 發砲命令도 證人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證人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證人의 上部로부터 發砲命令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은 發砲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證人이 撤收命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證言에 비추어 본다면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國民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證人이 얘기하듯이 國民의 軍隊요 國民이 税金으로 낸 그러한 軍隊가 國民에게 發砲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러한 責任을 證人이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證人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 國會를 모독하고 있는 그리고 國民을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證人이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指揮責任을 자기가 지고 이렇게 태도를 國民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金一玉 委員님! 委員님께서 현장에 안 계셨고 또 아까 金泳燁證人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金泳燁記者가 애기한 것은 믿고 현장 大隊長이 직접 部隊를 지휘한 大隊長의 얘기는 어떻게 믿지 않는지가 의심스럽고요.

○張石和委員 金泳燁 證人은 客觀的인 第3者입니다. 그 사람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第3者로서 목격자입니다.

○證人 金一玉 또 하나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 긴박한 것은 이미 示威群衆의 裝甲車로 인해서 저희들의 兵士들이 죽고 또 버스가 위협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진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兵士들이라든가 將校들이 흥분 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軍人이 兵士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內務班에서 생활 하도록 하는 것은 軍人으로서의 하나의 단결과 그 다음에 骨肉之情으로 뭉쳐서 어떠한 任務遂行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軍人을 만들기 위해서 內務生活를 시키고 단결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軍입니다.

○張石和委員 됐어요.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證人 金一玉 그런 상황에서 같은 戰友가 죽었는데 그때에 오히려 戰友는 더 흥분하고 더 오히려 大隊長들이라든가.....

○委員長 文東煥 證人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訊問할 사람이.....

○證人 金一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제를 시키고 오히려 더 그와 같은 자제를 시키지 않고 大隊長들이라든가 그때에 31師團으로부터 實彈을 수령한 것을 그대로 責任性 없이 나누어 주었다면 오늘과 같이 피해가 더 많이 났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趙洪奎委員 그로 인해서 市民이 안 죽었나!

(場內騷亂)

○證人 金一玉 委員님!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기에 證人으로 나와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證人이면 證人답게 대답해!

○證人 金一玉 證人답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엠배서더 호텔」에서 훈련 받으러 나갔잖아!」하는 이 있음)

누가 「엠배서더」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委員님!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하십시오.

다음은 無所屬 朴燦鍾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場內騷亂)

조용해 주십시오. 거짓말이 있으면 다음 두 委員께서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朴燦鍾委員과 李仁濟委員 두 분께서 물어 주시겠는데 먼저.....

○朴燦鍾委員 金文元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제시 것같은데.....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늦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金文元委員 委員長! 우리 光州特委 권위를 위해서 지금 나오신 證人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를 한 마디 하세요. 그리고 會議를 진행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묻는데 정중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國民이 이 사태의 바른 結論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朴燦鍾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朴燦鍾委員 朴燦鍾委員입니다.

證人 金一玉大領!

○證人 金一玉 예.

○朴燦鍾委員 5月18日 錦南路에 部隊가 산개한 이후에 진압봉으로 市民을 제압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의 部隊員이..... 이것은 證人이 지금까지 몸싸움이라는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分 내지 50分의 作戰을 수행했다고 하는 그날 진압봉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證人 金一玉 진압봉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날 朝鮮大學校 宿營地에 連行된 체포자 수가 얼마로 기억합니까?

○證人 金一玉 19時에 復歸해 가지고 報告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173名으로 報告를 받았읍니다.

○朴燦鍾委員 그 중에 負傷者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證人 金一玉 그때 다 후송하고 난 뒤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報告를 받은 바가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지금도 負傷者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해 보셨나요? 명예로운 大韓民國 陸軍 大領의 입장에서 여기에 출두하셨다고 했는데 9年前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 따라서 모든 점에서 경험이 지금보다는 부족했을 때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負傷者가 連行者중에 있는 것같아요 없는 것같나요?

○證人 金一玉 報告는 못 받았읍니다마는 示威鎮壓 과정에서 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被害가 오하려.....

○朴燦鍾委員 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鎮壓棒을 사용해서 제압하는 경우를 證人은 몸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證人 金一玉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날 16時頃에 錦南路 鎮壓作戰에 證人의 部隊가 投入됐을 때 警察이 이 방패를 들고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이런 證言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목격이 됐습니까?

○證人 金一玉 19日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18日은 示威鎮壓을 위해서 어떤 적극성이 없었고 의욕이 18日 없었다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18日은 約 1,000名의 市民이 모여 있는 것이 目測되었다 이렇게 아까 證言하셨지요?

○證人 金一玉 그것을 안 것은 警察 狀況 電話로 兵力出動 要請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안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그럼 證人이 現場에 나갔을 때는 市民이 얼마나 모여 있었나요. 가장 많은 集團이 證人의 눈으로 目測되기는 몇 名으로 目測이 됐나요?

○證人 金一玉 警察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봤읍니다. 1,000餘名 정도.....

○朴燦鍾委員 지금 張石和委員이 물은 5月21日 發砲와 관계된 것을 내가 생각한 疑問點을 두세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證人이 최초로 수발의 M16이 아닌 M16 보다는 총성이 미약한 수발의 총성을 아까 들었다고 얘기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것을 듣고 나서 裝甲車가 들진하고 버스가 분수대에 처박히고 한 사태가 생겼지요?

○證人 金一玉 裝甲車가 들진을 해서 분수대를 들고 大隊後尾를 빠져 나가고 난 뒤에...

○朴燦鍾委員 버스가 오기 그 사이에 수발의 총성을 들었나요?

○證人 金一玉 그때의 기억을 제가 더듬어봤을 때 裝甲車가 올라옴과 錦南路에서 兵力이 위로 일대 혼란장을 이루면서 올라옴과 동시에 또 裝甲車가 나타나면서 銃聲이 있는 것 같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裝甲車에 證人部隊員이 일부 피해를 입은 것 버스가 처박힌 것이 이것은 다 지금 생각해 보면 一過性이지요. 한바퀴 빙돌고 물론 軍人이 일부 다치기는 했지만 和順쪽으로 빠져나가고 버스는 錦南路 분수대에 이렇게 충격되어서 정지를 하고 다 一過性이었지요. 그것으로 狀況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무슨 뜻입니까?

○朴燦鍾委員 장갑차가 노타리를 한 바퀴 돌고 和順쪽으로 나가고 다음에 버스가 분수대에 충격되어서 정지되고 하는 상황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장갑차와 버스를 움직이는 표적으로 했을 때...

○證人 金一玉 제가 위치했던 道廳앞 울타리 있는 데에서 보았을 때는 그 두 상황이 제일 큰 상황이었읍니다.

○朴燦鍾委員 그것은 一置性狀況입니다. 그런데 4個大隊가 混成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金一玉 裝甲車 올라오는 바람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읍니다.

○朴燦鍾委員 그런데 證人은 證人部隊員들이 指向射擊을 한 것같다고 얘기했지요?

○證人 金一玉 제가 왜 指向射擊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에 목표물을 향해서 射擊을 했더라면 道廳 左右측의 兵力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물을 향해서 射擊을 했다면 그것이 빗나갔거나 했을 때에는 軍人들한테도 많은 被害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指向射擊이었다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날 證人이 指揮하는 35大隊員中에는 銃傷被害者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런데 그날 政府가 發表한 資料에 의하면 一般市民中에는 銃傷被害者가 54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政府가 公式으로 發表한 文書가 54名의 被害者입니다. 이 數字는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裝甲車와 버스가 一過性으로 지나가고 충격해서 정지하고 하는 때에 證人의 部隊員이 격앙되었을는지 모르지만 當時 이 狀況을 두고 指向射擊이건 照準射擊이건 射擊行爲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行爲 자체가 이미 정도와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被害者數가 당장 대비되지 않습니까? 證人部隊員은 被害者가 하나도 없고 一般市民이 54名의 被害者가 있었다. 正當防衛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바로 이 數値와 이 狀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發砲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대장이나 部隊員들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射擊을 했다고 봅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자, 이 자리에 당시의 空輸司令官도 나오고 旅團長도 나오고 大隊長도 나왔는데 아무도 發砲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아까 證人은 民正黨 沈明輔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國會가 和合의 차원에서 光州問題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國會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상규명이 안되고 전부가 發砲와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오고 하니 어떻게 和合의 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證人 金一玉 政治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答辯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部隊員들에 대한 教本中에 教育用 資料中에 美 空輸部隊에서 訓練用으로 쓰는 「필름」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필름」內容을 보면 暴動鎮壓에 있어서 붙들면 꿰어 앉히고 반항하면 목밀에 쇠골을 뿌러뜨리고 그래도 달아나면 사살하는 이러한 동작장면을 이 「필름」에 실었는데 空輸部隊 教育用으로 이러한 「필름」을 사용합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바로 이와 같은 教本에 쓰여있는 이와 같은 暴動鎮壓의 방법을 光州示威鎮壓에 空輸部隊가 그대로 教本內容대로 활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證人에게 空輸部隊 主任務가 아까 浸透作戰 特戰任務 忠情作戰 그리고 소정의 教育訓練 이렇게 비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空輸部隊가 개념하고 있는 忠情作戰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騷擾 暴動中에 어느 것을 진압하는 것을 말합니까?

○證人 金一玉 騷擾 鎮壓을……

○朴燦鍾委員 騷擾 鎮壓……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示威鎮壓은 어떻게 되나요?

○證人 金一玉 騷擾鎮壓과 示威鎮壓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示威와 개념이 다르고 騷擾가 다르고 暴動이 다른 것입니다.

空輸部隊의 忠情作戰은 敵 後方 점령지역의 暴動 개념에 두고 그 暴動을 진압하기 위한 忠情作戰인 것입니다.

이것을 單純 示威鎮壓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곳에 證人의 部隊가 명령에 의해서 거기에 진입한 것이 오늘 證人이 명예로운 陸軍大領인지 모르지만 불명예스럽지도 이 證言臺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證人의 소감은 어떠세요.

○證人 金一玉 무슨 내용에서의 소감을 말씀하시는지?

○朴燦鍾委員 證人은 命令만 받고 命令에 따라서 움직인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進入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命令이 우리 國民이 단순히 民

主化를 요구하는 示威를 진압하는 곳에 敵占領地域의 폭동을 진압하도록 훈련받은 貴部隊가 투입된 것이 오늘의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의 견해에 대해서 證人の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證人 金一玉 저는 그때에 출동을 할 때에 示威鎮壓이 民主化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지금도 모릅니까?

○證人 金一玉 지금 현재 朴委員님께서 물으신 것이 民主化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大隊長으로 출동해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大隊長으로 출동을 해서 31師團長님의 명령을 받고 示威鎮壓을 해라 그러한 명령이었지 그 당시 光州自體가 民主化인지 뭔지를 모르고 출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이 내 質問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대답하는 것같은데 됐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길 바랍니다. 10分입니다.

○李仁濟委員 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證人은 80年5月당시 空輸部隊에 몇 年째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3年째입니다.

○李仁濟委員 特戰司狀況日誌에 보면 5月20日 밤 9時50분에 35大隊가 11空輸하고 道廳앞에 통합 집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道廳앞으로 집결한 시점이 5月20日 밤 9時50分 맞습니까?

○證人 金一玉 아마 21時에서 22時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하여튼 5月20 밤늦게 道廳앞으로 集結이 되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示威群衆이 밤새도록 21日까지 연결해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示威群衆이 모두 흩어진 時點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에 道廳앞에 도착을 했을 때는 車輛들이 勞動廳方向에서 많이 불타있었고 그 다음에 충장路 方向쪽으로 警察들이 示威鎮壓하는 광경도 보고 그랬습니다.

○李仁濟委員 35大隊가 5月20 밤늦게 道廳

앞에 갔을 때 示威群衆이 있던 가요?

○證人 金一玉 示威群衆이 있었던 것으로.....

○李仁濟委員 있었습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示威群衆이 계속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때는 저는 市民과 대치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11空輸가 대치해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李仁濟委員 다른 11空輸部隊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證人の 35大隊는 대치는 안 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35大隊兵力이 잠을 거기에서 잤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거기에서 그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大隊 實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朝鮮大學校 宿營地에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현장에 證人指揮「지프」에 實彈은 가지고 갔었어요?

○證人 金一玉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21日날 午後 1時 발포가 있을 때까지도 宿營地에서 實彈을 안 가지고 갔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지난번 35大隊는 5月19日 새벽4時附로 11旅團에 作戰配屬이 되었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11旅團長 崔 雄將軍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문제의 5月21日 오전에 자기는 戰敎司에 있었다고 證言을 했고 거기에 있을 때 오전중에 道廳앞에 있는 어느 大隊長으로부터 發砲許容 요청을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證言을 하면서 그러나 그 發砲要請을 거절했다 또 이렇게 證言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一玉 지난번 聽聞會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은 오랜 指揮官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道廳앞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5月21日 1時次에 임박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전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철야로 이루어진 대치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이런 상황에서 그 긴 대기상황 속에서 5月21日 오전에 大隊長이 자기 直屬 上官인 旅團長한테 示威群衆을 향해서 發砲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發砲하지 말라는 命令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證人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命令은 곧 생명이상 아닙니까? 軍組織에서.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런 命令을 받고도 發砲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지요.

空輸部隊兵力이 가지고 있는 武力중 제일 위험이 높은 것은 銃器아닙니까? 發砲하는 것이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 武力을 다시 말하면 射擊을 統制를 하는 것은 指揮官으로서 제일 큰 任務지요?

○證人 金一玉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현장에서 大隊長이 最高 指揮官이 大隊長인데 隊員들의 射擊을 大隊長이 統制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證人 명백한 것은 간단간단히 答辯을 해주십시오.

○證人 金一玉 현장에서 그것을 저희 大隊長들이 統制 못했다. 하는 것은 指揮官들의 指揮가 미숙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李仁濟委員 崔 雄旅團長한테 射擊要請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大隊長은 射擊을 하지 말라는 命令을 받고 있는 下級指揮官입니다.

그 指揮官이 자기가 現場에서 지휘하는 部隊의 射擊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證人 金一玉 글썽요. 제가 現場에서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것이 거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저 자신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崔 雄旅團長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어떤 上部系統으로부터 사격을 해도 좋다고 하는 다

른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立證하는 것입니다.

證人!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격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證人! 미안하지만 圖表를 좀 세워서 本委員이 質問에 答辯해 주십시오. 證人의 위치를 짚어 주십시오 證人 이 어디에서 指揮했습니까?

○證人 金一玉 大隊後尾로부터 約10m 전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자리에 作戰將校하고 無電兵하고 證人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一玉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장갑차가 끊고 나오면서 錦南路쪽에 있는 空輸大隊들이 후퇴했다고 했지요?

○證人 金一玉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후퇴해서 다시 대형을 갖춘 지점을 한번 점을 찍어 주세요.

○證人 金一玉 그런데 그 당시에 후퇴였는지 안후퇴였는지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APC가 올라오자 말자 이 주위에 空輸部隊가 일대 수라장을 이루면서 돌아 왔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처음에 錦南路에 대형을 이루고 있던 저지선이 證人 視野에 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까?

○證人 金一玉 안들어왔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장갑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證人 視野에 錦南路쪽에 空輸兵力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證人 金一玉 여기에 들어오는 兵力들은 視野에 들어왔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實彈을 下級將校들끼리 나눠갖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한번 점을 짚어보세요. 證人麾下의 將校들이 어디에서 實彈을 나누고 있던가요?

○證人 金一玉 道廳앞 일대에 있는 저희 大隊 뿐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 오는 將校들 이쪽의 2個大隊가 모두 모여있는 상황이었읍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證人麾下의 將校도 實彈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면서요?

○證人 金一玉 그러니까 道廳 분수대 있는 데에 2個大隊가...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道廳 분수대를 가려면 證人麾下 將校들이 證人앞을 지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證人 金一玉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었
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야...

○證人 金一玉 아니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금남로쪽에 35大隊 將校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證人 金一玉 여기에서 장갑차가 지나가고
난뒤에 大隊들은 분산이 되어가지고 있었읍
니다.

○李仁濟委員 혼합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證人大隊가... 이렇게 묻지요 장갑차
가 지나가서 혼란이 일어난 후에 證人大隊
兵力은 어디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까? 어느
지점에...

○證人 金一玉 그때에 주로 道廳앞에 여기에
있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이 처음 지휘할때
證人部隊 화순 나가는 길에 저지선을 치고
그대로 장갑차가 통과하고 나서 분수대쪽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까? 35大隊 병력도?

○證人 金一玉 35大隊 兵力도 분수대 쪽으로
많이 들어왔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11旅團 다른 兵力들도
그쪽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지요?

○證人 金一玉 이쪽으로 이렇게 혼잡을 이루
고 있었읍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그날 1時하고 연이어서
한두어차례 集團發砲가 있었는데 대개 몇분간
集團的인 총성이 들리던가요?

○證人 金一玉 불과 버스가 올라와 가지고
멈추는 시간이 몇분 안되었읍니다. 몇분인지
몇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땅하고 끝난 상황
이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集團射擊이 이루어질 때
는 證人 視野에 사격하는 部隊들이 전부 들
어온 것입니다. 證人 이야기대로 하더라도
애초에 錦南路쪽에 저지선을 치고 있던 11旅
團兵力은 視野에 없었지만 장갑차가 통과하고
證人部隊까지도 분수대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
고 11旅團兵力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集團
發砲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모든 목격자들의
證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光州道廳앞에
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손바닥만한 곳입

니다. 여의도광장처럼 넓은 곳도 아니고 證
人이 大隊長으로서 더구나 證人麾下兵力도 분
수대쪽으로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集團發砲
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디 한두 명이 죽었습니까? 거기에서... 적어
도 50名 이상이 死亡하고 數百名이 負傷했읍
니다.

그런데 그러한 射擊命令이 證人! 생각을
해 보세요. 正當防衛라고 하는 것은 軍人
하나 둘이 어디 지나가다가 指揮系統이 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협이 닥쳤을 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발포할 수는 있는 것
이로되 隊形을 이루어서 거기에는 支隊長 中
隊長 地域隊長 大隊長 이런 指揮官들이 전부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作戰을 하고있는 것인
데 正當防衛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證人이
이야기했듯이 命令 없이는 발포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旅團本部에서 射擊命令이 온
것입니다. 證人 그거 시인 못합니까?

○證人 金一玉 저는 射擊命令을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서 大隊長들이 戰友가 죽고 쓰러
진 그 상황에서 흥분된 분위기였읍니다.

○李仁濟委員 空輸部隊는 대형을 이루어서 작
전을 하고 있는데 그 現地에 있는 最高指揮
官의 명령없이 함부로 사격을 하는 그런 部
隊입니까?

○證人 金一玉 지금 현재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히려 大隊長들이 사격을 했다고 욕을 하고
누가 사격을 했느냐하고 사격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고함지르고 소리친 적이 있는 것 같
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으로 金一玉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칠것읍
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
지 張世東證人이 나오시지 않았고 아무 통지
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國會의
요청에 應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張世東씨가 오고 싶어도 訊問하느라고 오지
못하게 한 우리 檢察의 처사는 대단히 유감
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聽聞會를 마칠것읍니다.

(23時21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煥 太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敏 燮 劉 守 鎬 鄭 東 鎬
 鄭 昌 和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沅 桓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尹 在 基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委員

金 潤 煥 金 長 淑 咸 鍾 漢
 洪 世 基 金 德 圭 金 令 培
 朴 錫 武 朴 英 淑 朴 亨 午
 宋 鉉 燮 鄭 祥 容 鄭 雄
 趙 淳 昇 崔 泳 謹 崔 洛 道
 姜 信 玉 金 鎔 采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出席證人

金泳燦(前 東亞日報光州駐在記者)
 金一玉(前 7공수여단 35대대장)
 李世榮(80.5.21 도청앞 발포상황관련시민)
 李順魯(80.5.21 도청앞 발포상황관련시민)
 柳炯根(80.5.21 도청앞 발포상황관련시민)
 任正福(前 31사단작전참모 보좌관)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 員 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 運動真相調查特別	趙淳昇	趙洪奎	平和民主黨

(1月26日字)